

자연보존

제 4 호

1974. 8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974. 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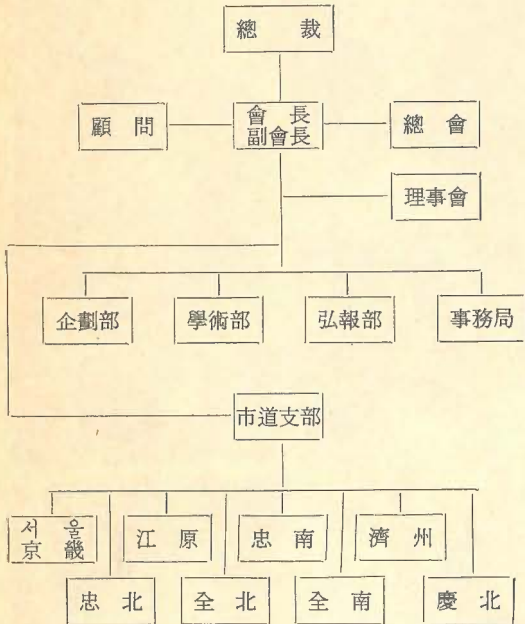
韓國自然保存協會 發行



대한민국 자연보존협회

全北支部 노 시 영
 全南支部 許 演
 部長: 企劃部 鄭 英 昊
 學術部 李 永 魯
 弘報部 元 炳 軒
 事務局長: 尹 一 炳

<機 構>



<任 員>

總裁: 陸 英 修
 顧問: 李 孝 祥 李 殷 相
 會長: 李 德 鳳
 副會長: 李 徽 載 金 昌 煥
 理事: 姜 永 善 金 鳳 鶴 金 遵 敏
 金 憲 奎 金 熏 洙 南 貞 燮
 朴 萬 奎 孫 繼 天 孫 致 武
 楊 麟 錫 元 炳 軒 李 敏 載
 鄭 英 昊 崔 基 哲 洪 淳 佑
 監事: 元 炳 徽 李 一 球
 市道支部長: 서울·京畿支部 姜 永 善
 江原支部 孫 繼 天
 忠南支部 南 貞 燮
 濟州支部 金 鳳 鶴
 慶北支部 楊 麟 錫
 忠北支部 趙 成 鎮

<事業內容>

- 1. 實態調查**
 絶滅危機에 놓여 있는 生物의 種族을 調査하여 保護하는 事業.
- 2. 啓蒙教育**
 自然資源 保存에 관련된 知識과 重要性의 理解를 增進시키는 啓蒙 教育 事業.
- 3. 生態學的研究**
 人間과 自然의 連關性을 究明하고 保存을 위한 生態學의 原理를 찾아내는 研究 事業.
- 4. 保護 事業**
 人類의 福利를 위한 自然保護 地域을 원상대로 保存하는 事業.
- 5. 關聯法 研究**
 自然資源 保存에 관련된 사항의 법제화를 위한 研究 및 建議 事業.

<表紙說明>

우리 나라 淡水資源의 保護 증식을 도모하며 國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974년 5월 28일 강원도 昭陽湖에서 本協會 주관으로 총재 故 陸英修 女史와 관계 부처 長官등 各계 인사를 모시고 淡水魚 10만여 마리를 放養하였다.

여기에 放養된 淡水魚는 金濟源, 徐英姬 두분 國會議員이 기증해 주었다.

<사진은 本協會 강원지부 제공>

우리는 우리 나라의 自然資源과 國土를 保存하고 國民의 휴양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祖 上으로부터 계승한 것들을 그대로 後孫에게 물려 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愛國 愛族의 精神을 함양시켜 國民總和에 기여 한다.



總裁 故 陸 英 修 女 史

조 사

고 육영수 총재님 !

총재님의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격려의 말씀을 실으려던 이 지면에 총재님을 잃은 애도의 글을 쓰게 되었다니 실로 마음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평소에 늘 서민임을 자처하시고 여하한 공직도 사양하시던 여사께서 「나는 우리나라 자연을 사랑하고 지켜 나가려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뜨거울지 모른다」고 하시며 저희들의 청을 받아들여 총재직을 수락하셨을 때 저희들 임원과 회원들은 실로 기쁨보다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협회의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검토하시고 사업 하나 하나에 관심을 표명하시며 자상하고 주밀하게 보살피시고 격려해 주시던 총재님의 서거의 비보를 듣고 저희들은 실의와 비통함에 한때 넋을 잃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 임원과 회원들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총재님의 유지를 받들어 미쳐 펴지 못하신 자연 보존 사업의 실체를 충실히 수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의 국토와 자연 및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원상대로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겠다는 총재님의 뜻이요 협회의 뜻을 기필코 성취시킬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삼가 총재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

속 간 사



회 장 이 덕 봉

본지가 「자연보존연구회」 기간에 3호까지 나오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번에 「자연보존협회」로 개편되면서 속간을 보게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양단된 우리의 좁은 국토는 인구의 증식으로 주택이 대량으로 건축되고 산업의 발전으로 공장이 수없이 건설되어 어쩔 수 없이 자연은 손상되고 자연자원은 피해를 입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공해도 심각한 문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10년, 2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각가지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여 자연 환경의 악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있는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하여 자연보존을 위한 법을 범하는 자는 일벌백계 주의로 다스리고 또 법으로 규제하는 일은 필요 불가결의 시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시책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자연보존에 대한 국민 각자의 자각을 불러 일으키고 범 국민적인 운동과 붐을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본 협회는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자연의 수려함과 자연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동시에 자연 보존 사상의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이 작은 잡지를 격월간으로 발행 배포하려 하며 이밖에도 다 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전 국민의 호응과 성원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화려한 금수 강산 우리 조국의 자연과 자연 자원이 보존되고 원상이 복구되어 후손에게 부끄러움 없이 물려 줄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論說〉

韓國의 自然保存 實態와 그 對策

吳 尙 源

民族文化가 그 겨레의 일이라면 그山河는 그 겨레의 뼈와 살이다. 自然環境을 바탕으로 그에相應한民族文化는 形成된다. 萬一 우리가 우리의 自然環境을 스스로 破壞하고 짓밟아 버린다면 결국 自主文化를 스스로 抹殺하는 結果밖에 되지 않는다.

또 現象的인 面에서 생각하더라도 自然環境은 우리에게 貴重하다. 거기에는 日光과 大氣가 있고 물과 大地가 있고 動植物의 온갖 調和가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로소 健康하고 幸福하게 生活을 營爲해 나갈 수 있다. 週末에 都市를 벗어나 山을 찾았을 때 길옆에 피어 있는 이름도 모를 한 송이 들꽃을 보고 그 싱싱한 健康美에 잠시나마 삭막한 都市의 疲勞를 잊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自然의 貴重함을 實感하지 못한 채 그날 그날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곧 自然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것으로 너무 손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은 空氣와 깨끗한 물맛의 고마움을 果然 우리는 얼마나 實感하고 있는 것일까.

都市人들은 수없이 내뿜는 工場과 各種車輛의 排氣 개스에 汚染된 混濁한 空氣를 매일같이 마시며 속으로 病드는 줄도 모르고 하루의 生活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어쩌다 시골길을 걷게 된다. 비로소 그는 空氣가 얼마나 맑고 상쾌한가를 알게 된다. 하늘을 쳐다 본다. 어쩌면 이토록 맑고 푸를 수 있을까. 아무리 쳐다 봐도 뿌어니 흐려있는 都市의 하늘, 쳐다볼 수록 도리혀 답답하기만 한 汚染된 都市의 하늘이 얼마나 人間에 의해 더럽혀져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

急速的인 近代化作業은 확실히 都市, 交通, 產

業 그리고 우리의 生活意識構造에까지 눈부신 變化를 가져온 것이 事實이다. 高度經濟成長의 물결을 타고 누구나가 보다 便한 生活을 누리기를 바랬다. 그러나 人口의 過密, 都市의 異常肥大, 工業의 大單位化는 고무風船처럼 부풀어만가는 새로운 開發붐을 타고 自然環境의 무자비한 破壞를 서슴치 않았다.

모든 近代化作業은 우리 生活에 많은 便利를 갖어 왔으나 그 反面 都市에서는 심지어 空氣와 上水道 물마저 汚染될 대로 汚染돼 숨 쉬고 물 한뼘을 마시는데까지 威脅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自然環境이 얼마나 무참하게 破壞되었는가를 摘示하자면 그 實例가 너무도 許多한데 도리혀 놀라움이 앞선다.

우선 工業團地에 의한 自然環境破壞의 境遇는 너무나도 深刻한 바가 있다. 蔚山工業團地에서 내뿜는 온갖 有毒性개스로 그곳 一帶의 果樹가 全滅했고 湖南精油의 境遇 麗水 앞바다를 폐유가 뒤덮는 바람에 魚貝類가 沒死, 심지어는 隣近 海水浴場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새로운 產業公害는 大規模 工業團地마다 큰 社會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특히 요즘 金屬에 의한 河川 汚染과 農藥 또는 分解되지 않는 永久性固形廢棄物에 의한 土壤汚染은 深刻性을 더해 주고 있다.

自然環境의 破壞는 이밖에도 또 있다. 造成이란 이름아래 都市의 公園이 마구 침식당하고 觀光이라는 이름아래 自然景觀이 마구 破壞되는 境遇다. 한마디로 그럴듯한 말의 合理化다. 바로 都市의 境遇 서울 南山公園이 그 좋은 例다. 解放後까지만 해도 南山公園은 그 기슭 훨씬 밑에까지 綠陰으로 옥여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슭뿐 아니

라 훨씬 중턱까지 온갖 樣式의 建物에 침식당하고 산등성이는 종횡으로 포장된 드라이브·웨이로 보기에 좋게 누비고 있다. 드라이브·웨이 주변의 푸른 樹木은 車輛들이 내뿜는 排氣개스에 누렇게 시들어가고 머지 않아 枯死할 날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다.

濟州島의 境遇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唯一의 暖帶, 溫帶, 寒帶의 動植物이 서식하고 있는 火山島인데 觀光開發이란 이름아래 마구 포장이 되고 特殊景觀地域이 個人에게 拂下되어 호텔이 들어서고 牧場으로 마구 개발되고 있다니 도시 寒心스럽기만 하다.

또 慶州 岫山의 境遇만 해도 그렇다. 岫山 중턱까지 아스팔트 길을 만들었고 호텔까지 드러서 있다. 石窟佛像을 찾아 진정 祖上의 슬기로움을 우리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땀 흘리며 岫山을 오르는 그러한 마음갖임이 앞서야 한다. 道路를 開發하는 것이 觀光客 유치에 큰 口實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誤算이다. 더욱이 慶州의 古墳群을 觀光地域化하기 위해 四方 길을 내고 人工湖水까지 만들 計劃이라니 어디서 그러한 기발한 着想이 떠오르는지 도저히 理解가 가지 않는다. 왜 自然 그대로를 保護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에 人工美를 加工하려는가. 人工美가 自然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말할 必要조차 없다.

심지어는 國立公園인 雪嶽山에도 사방 아스팔트 길이 깊숙히 뚫려 가고 있다는 消息이다.

勿論 그 地域적으로 볼 때는 經濟性등 開發이 몹시 성급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보다 重要的 것은 觀光資源을 아끼는 일이다. 당장의 利를 위해 마구 道路를 가설하고 호텔을 짓는 것이 급할지 모르나 그로 因해 車輛들이 마구 물러들고 排氣騷音등 온갖 公害가 동시에 물러들어 아름다운 樹木이 머지 않아 枯死하고 景觀이 제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結局 스스로 觀光資源을 破壞한 結果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點에서도 지난번 海印寺側에서 國立公園에서 제외하여 境內景觀을 保護토록 해 달라고 탄원한 처사는 自然環境保護를 위한 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西歐各國에서는 國立公園의 環境保護를 위해 入場者를 制限하는 「오버·유스對策」까지 강구하고 있다는 點을 考慮할때 決코 우리도 남의 일로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自然은 한번 破壞되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어떠한 形態로든 破壞되고 나면 다시는 原狀대로 되돌려지지 않고 제아무리 많은 資金을 들여 復元하려 해도 제 모습을 되찾을 길은 없으며 類似한 모습을 가추려도 많은 歲月을 要하게 된다.

그러므로 自然環境은 破壞하지 않는것 以上으로 좋은 것이 없고 그대로 保全하는 것 以上으로 더 좋은 方法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自然環境을 가꾸고 保全할줄 알아야 한다. 그저 보고 즐기고 感嘆할줄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眞正한 意味에서 自然에 대한 즐거움과 感嘆이 되지는 못한다.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려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自然의 참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

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自然을 우리들 後孫들에게 물려줄줄 알아야 한다. 祖上으로부터 물려 받은 이 아름다운 自然을 우리代에서 그러치는 일 없이 고히 가꾸어 물려줌으로써 그들도 그들의 後孫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自然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우리들 모두를 즐거움과 健康으로 이끄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政府는 公害와 自然環境保護對策을 철저히 세우고 무리한 開發등을 억제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緊要한 일이 自然保全에 積極인 投資를 해야 한다는 點이다. 投資 없이 말만으로는 自然은 保全되지 않는다. 더욱이 現段階로서는 直接投資보다도 實態과악을 위한 學術調查支援등 間接投資가 더욱 切實하다.

〈東亞日報 論說委員〉

〈資 料〉

昭陽湖에 放養한 淡水魚

崔 基 哲

1974년 5월 28일, 한국자연보존협회는 육 영수 총재를 비롯하여 김 제원, 서 영희 외 수명의 국회의원, 농수산부 장관, 수산청장, 강원도지사등 많은 명사가 참석한 가운데 소양호에 떠운 골든벨 호(배의 이름)상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치어를 방양했다.

1. 잉어—전장 9cm ; 70,000미
2. 비단잉어—전장 10cm ; 30,000미
3. 초어—전장 15cm ; 5,000미
4. 백연어—전장 15cm ; 5,000미
5. 금잉어—전장 25cm ; 1,000미

계, 111,000미.

이와같이 많은 치어가 세 추력에 실려와서 비닐 주머니 속에서 소양호 푸른 물 속으로 풀려 들어갔다. 해방된 기쁨이라도 구가하는 듯이 치어 한 마리 한마리가 자유 천지를 찾아가는 모습은 지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이날 이 행사를 주최한 우리 자연보존협회측에서도 이 덕봉 회장을 비롯하여 간부 1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수산청측에서도 이 행사에 협조하는 뜻으로 은연어(코호) 10만 내외를 소양호에 방류했다.

소양호는 72년 11월부터 물이 담겨지기 시작했다. 이 인공호의 물 수용량은 29억톤이다. 74년 5월 28일 현재 아직은 15억톤 내외가 채워졌을 뿐이다. 그러나 댐이 축조되기 전에 비하면 물의 양이 엄청나게 불어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의 수가 그만큼 불어난 것은 아니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1리터에서 놀던 물고기가 100리터나 1,000리터의 물에서 살게 된 셈이다. 이처럼 물고기의 밀도가 낮은 곳에 치어를 방류한 셈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종들이 이미 포화상태로 불어난 곳에

치어를 넣은 것에 비하면 매우 유리한 셈이다.

하나의 걱정 거리는 방류된 치어가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73, 74년 7월에 조사한 바로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음을 알았다. 다시 이것들에 이어서 그것들을 먹고사는 소동물들도 번창하게 될 것이므로 잉어 무리의 식량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더구나 백연어는 막바로 플랑크톤을 먹고 성장하므로 그들의 식량은 넉넉하다. 풀을 먹는 초어는 수초가 번창하기까지 앞으로 2~3년은 고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산소 부족은 조금도 염려가 되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수질이 오염될 염려도 없다.

그렇다면 해적동물을 걱정하여야 할 것인가? 가물치, 메기, 소가리, 동자개 등 치어를 잡아먹는 해적들이 있기는 하나 당분간은 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걱정이 되는 해적은 꼬리이다. 먹을 것이 풍부해서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1~2년은 몸의 길이가 20cm 이상되는 개체가 많지는 못할 것이므로 이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좋은때에 좋은 장소에 치어가 방류된 것을 생각하면 일단 기대를 걸어 보고 싶다. 다만 코호만은 예상이 간단하지 않다. 전장 30cm 전후가 되면 포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치어를 소양호에 방류했다는 것이 상기한 바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수시로 방류 성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필자들은 지금부터 그 성과를 확인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大 師大 教授〉

〈資 料〉

絶種위기에 있는 動物

元 炳 晔

느시(너화, 들칠면조) Great Bustard

Otis tarda dybowskii Tacjanowski

소련領 알타이 東部에서 트란스바이칼리아, 몬골리아, 만주 및 우수리 等地에 棲息하나 일부의 集團은 南下 移動하여 越冬한다. 上記分布圈內 일부 地域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으며 한 때는 흔했던 地域에서도 아주 稀貴한 種으로 되어 버렸다. 中國 東北地方(滿洲), 中國 本土(甘肅省, 陝西省, 드물게는 楊子江 溪谷)에 걸쳐 越冬하나 때로는 中國 福建省, 버마 東北部까지 내려가며 日本의 各地에까지 漂行한 記錄이 있다. 韓國에는 2次大戰時까지 全國 各地에 多數渡來 越冬하였다. 1888年 폴란드의 타크자노우스키는 서울 周邊에서 100마리 單位의 느시를 흔히 目見하였다고 하며 1892年 英國의 캠프벨은 1887—1889年 겨울에 韓國에 머물면서 多數捕獲하였으며 30~40마리의 느시 무리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했다. 韓國에서 越冬하던 무리는 넓은 들(논밭)에서 볼 수 있었으나 드물게는 山林內 空地나 耕作地에서도 눈에 띄었으며 10마리에서 40~50마리의 무리가 보통이었다. 그러나 1910年 日本의 植民地 統治가 始作된 以來 이미 느시는 減少되어 갔으며 韓國動亂 이후에는 激減되어, 最近에는 越冬群이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매우 드물게 不過 몇마리의 무리가 各地에 分散渡來하는 稀貴한 겨울새가 되고 말았다. 몇해전 겨울에 江原道 東草 附近에서 北上中인 4個體가 發見되었고 1970年 11月 29日에는 京畿道 江華島에서 南下中인 수컷 4마리와 암컷 3마리의 7個體를 觀察한 記錄이 있으며 1974年 1月에는 西海의 연평도에서 1個體가 生捕되어 昌慶苑動物園에서 飼育中 폐사 하고 말았다

느시의 全長은 수컷이 102cm, 암컷이 76cm의 獨特한 形態를 가진 大形의 鳥類이다. 머리와 목은

灰色, 背面은 黃褐色 바탕에 黑色橫斑이 있으며 下面은 白色이다. 수컷은 가슴을 橫斷하는 암색帶가 있으나 암컷은 없다. 날 때에 목은 앞으로 뻗으며 날개끝단 黑色인 거의 白色의 날개로 보인다.

平原에서 오목 들어간 地上에 若干의 깃털을 깔고 5~6月頃 한 배에 3~4개의 알을 낳는다. 올리브綠色 바탕에 黑褐色斑紋과 灰色斑點이 散在하는 79.8×55.7mm 內外 크기의 알이다. 암컷만이 抱卵하는 一夫多妻制이다. 穀類, 植物의 葉, 根等 植物質과 간혹 昆虫, 爬虫類等 動物質도 捕食한다.

韓國에서는 咸南에서 慶南에 이르는 全域과 濟州島에서의 記錄도 있으며 10월부터 4月까지의 期間에 모습을 보였었다. 오랜 經驗을 갖고 있는 狩獵家는 대개 느시를 잡아 보았을 것이다. 그토록 고기맛이 좋은 代表的인 獵鳥의 1種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世界的인 保護의 對象이 되고 있는 實情에 놓여 있다. 國際自然保存聯盟(IUCN)의 絶種危機의 生物保存委員會(SSC)에서는 느시의 特別調查團을 構成하여 汎世界的인 實態를 把握하고 있으며 센사스를 통한 번식지나 越冬地의 動態는 勿論, 移動經路途上의 地域에서의 狀況을 調査하여 保護와 管理에 萬全을 期하여 增殖을 圖謀하고 있다.

蕃殖地에서 제아무리 保護가 잘 되어도 越冬을 爲한 南下 移動中에, 또는 韓國과 같은 越冬地에서 保護에 소홀하여 한 마리라도 희생된다면 增殖에 實効는 거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韓國을 爲始한 國際鳥類保護會議(ICBP)에 加入되어 있는 70餘國家間에 恒時 協助가 이루어져야 하며 近間에는 두 나라間에 各己 철새의 保護條約, 輸出入禁止(制限) 條約等이 締結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多國間에 同時에 關係條約을 맺기 爲한 基礎作業이 現在 進行中에 있다. <慶熙大 敎授>

<自然紹介>

울릉도

—植物相을 中心으로—

李 永 魯

울릉도는 동해속에 있으며 포항에서 268km 떨어져 있는 제3紀末에서 제4기 사이에 생긴 섬이라고 볼 수 있으며 1,000m 가까운 성인봉이 중앙에 위치하여 있고 섬전체가 험준한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섬의 위도는 북위 37°선에 있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비슷한 곳이다.

이섬의 植物은 日本 동경대학 교수였던 중정(中井) 박사가 1919년에 관속식물 이상의 고등식물을 374種 발표한 바 있고 그후에 한국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많은 種이 추가되어 현재는 600종에 가까운 종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이 섬에는 동위도의 판곳에 비하여 상록활엽수가 많고 특산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식물학적인 관심이 큰 섬이다.

상록수는 25種이나 되고 그중 상록활엽수가 17종, 침엽수가 8種이나 된다.

서울 부근에서 상록활엽수로 자라는 것은 사철나무와 회양나무가 있는데 비하여 많은 상록수종이 자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섬에는 특히 특산식물이 많다. 목본과 초본의 특산식물의 수는 36種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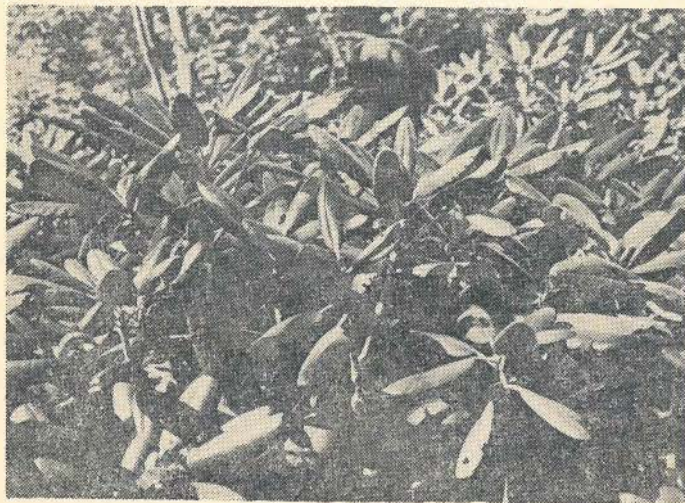
이와같이 상록수가 많고 또한 특산종이 많은 것

은 식물학적으로 가치가 큰 섬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울릉도에서 가까운 우리나라 본토에는 植物種類가 4000여종이나 되는 데 그 一割 정도의 식물종수가 자라고 있으면서도 본토에 없는 것이 많으며 울릉도식물의 1할 가량이 특산식물이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본토에 흔히 있는 진달래, 산철쭉, 철죽도 없고 봄에 노랗게 피는 개나리도 이 섬에는 없다. 그리고 잣나무는 없으나 잎이 잣나무보다 짙막한 섬잣나무는 자라서 좋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섬벚나무는 본토에 많은 개벚나무와 같이



울릉도 성인봉의 만병초

이 섬에는 많고 본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루귀보다도 잎이 크고 꽃이 큰 섬노루귀와 본토에 있는 두루미꽃 식물보다 대형으로 나타나는 큰두루미꽃, 육지에서 흔한 호장근보다 월등히 큰 왕호장근, 자리공식물보다 큰 섬자리공, 백리향보다 큰 섬백리향등은 이곳의 특산식물인 것으로서 육지의 유연식물에 비하여 대형화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큰 두루미 꽃이라든가 섬노루귀 따위의 염색체를 조사해보면 본토에 나는 유연식물과 같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一般적으로 식물이 대형화될 때에는 염색체수의 배가현상이 있는 수가

많다.

아마도 큰 두루미꽃과 섬노루귀와 같은 경우는 체세포질에 있는 폴리진(poly gene)의 영향이 이를 결정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토에서는 화석으로만 나타나는 너도밤나무는 울릉도 성인봉의 주요 삼림요소가 되고 있는가 하면 이 식물은 日本 본토에 나는 일본 너도밤나무(*Fagus japonicus*)에 아주 닮은 식물이다. 우리나라 울릉도에 나는 너도밤나무와 일본 너도밤나무는 역시 같은 조상에서 나와서 떨어진 두지역간의 환경 차이로 오래전에 종분화현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 너도밤나무 무리는 북구라파와 북미에 분포하고 이웃나라 중국에도 나고 있는 古植物에 속한다.

이 섬의 중간 라리동골에는 특산식물인 울릉국화 *Chrysanthemum zawadskii* Herb. ssp. *lucidum* (Nakai) Y. Lee가 나 있다. 이 식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을철에 국화꽃이 피는 一種의 野菊이며 우리나라 본토에 흔한 구절초와 基本的인 형태는 닮았으나 잎이 약간 두껍고 잘라져 있으며, 염색체수는 $2n=36$ 으로서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Herb. *latilobum*과 같다. 그러나 염색체수는 구절초와 같아도 형태상의 차이가 생긴 것은 핵형의 차이 또는 폴리진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같은 염색체수를 가진 구절초 무리는 일본 땅에 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구절초와 울릉국화의 염색체수를 따져 보았을 때 우리나라 본토와 울릉도와의 식물학적 관계는 日本과 울릉도의 식물학적 관계 보다는 더 깊다고 할수가 있다.

섬호장근(*Reynotria saccharinensis*)은 호장근(*Reynotria japonica*)에 비하면 대형이고 잎도 약간 세모져 있으며, 이 식물은 일본의 북부에 있는 북해도에 나는 것이다.

이 섬에 나는 섬나리꽃(*Lilium hansanii*)은 잎이 윤생으로 두꺼로 들어 붙어 있으며 붉은 꽃은 아름다워서 오래전부터 관상용으로 재배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 섬은 오동나무의 산지로서 과거에 이름이 높았고, 오동나무의 원산지가 될 것이라고 보아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아람드리되는 큰 오동나

무들은 남벌로 자취를 감추고 어린것만이 자라고 있다.

향나무로도 이름난 곳이 울릉도이며 고목이 된 향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는데 이 향나무는 향불감으로, 또는 고급가구 재료로 사용되어 남벌을 면치 못하여 왔으므로 현재에는 벼랑에 붙어 있는 것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이 간신히 생을 존속시키고 있을 뿐인데 그것들도 도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총면적 72.9km²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섬에 2만 2천여명의 많은 주민이 살고 있고 季節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까닭에 섬은 날로 황폐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채약자들은 약초를 다량으로 마구 캐가고, 나무껍질을 벗겨가다가 하면 주민들은 도벌, 남벌로 울릉도 식물자원을 파괴로 이끌고 있어 이를 철저히 막는 길을 강구하고 자연의 복구 작업을 과감히 실행 하여야 할 것이다. 될 수 있는대로 이곳에 나는 天然의인 좋은 나무를 번식시키고 좋은 풀과 꽃을 길러 울릉도의 원상을 아름답게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본래 나지 않는 나무와 풀들을 육지에서 또는 외국에서 마구 들여다 심는 졸렬한 자연 복구는 피해야 할 것이다.

한 예인 리기다소나무가 잘 자란다고 해서 보기에 좋다고 벨감 밖에 되지 않는 나무를 왜 심고 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곳에는 天然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식물로 목재로도 좋은 섬자나무와 솔송나무도 있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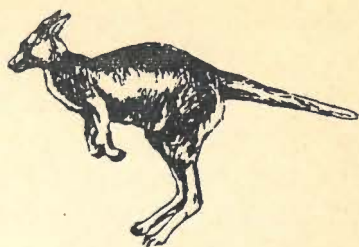
이섬에 개구리가 없다고 삼림주사 김용택씨는 1945년에 개구리를 본토에서 들여다 퍼지게 하더니, 작년(1973)에는 산을 즐기어하는 어느 老人이 그곳에 진달래 씨를 본토에서 받아다가 뿌렸다고 한다. 본인들은 선의의 行動이었으나 역시 그 행동은 生物學的 立場에서 볼때에 진정 참을 수 없는 자연의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수 밖에 없다. 또한 외국의 식물종류와 동물의 種類를 국내로 들여오는데도 심사 숙고하여 제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 보존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梨大 文理大 教授〉

〈外國의 國立公園〉

호주편

티 드 빈 빌 라



金 昌 煥

지난해 8月末에 濠洲의 首都 칸베라市에서 열린 第 14次 國際昆蟲學會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고 회의가 9일간이나 계속되고 보니 회의가 없는 일요일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티드빈빌라(Tidbinbilla)自然保存地區를 찾았다. 다행하게도 호주에 이민간 K씨가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더우기 차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구경가 주기로 하였다. 이왕가는 길이고 차에는 자리도 있어서 일본학자 2분도 태우기로 하여 一行은 아침 9시에 숙소를 떠났다.

날씨는 청명했으나 이른 봄철이라 좀 쌀쌀했다. 티드빈빌라 계곡은 코터(Cotter)라는 마을을 거쳐 가게 되는데 도중 눈앞에 펼쳐지는 한적한 田園의 풍경은 한쪽의 그림과도 같았다. 마른 풀밭에 짐승의 양떼들이 유유히 거닐고 있는 목장 사이를 달리는 포장 도로를 달리기 45분 가량에 나무밭목의 울타리로 마치 우리나라 일선 지구의 옛초소와도 같이 하여 놓은 입구에 달했다. 『티드빈빌라 자연보존지구』라는 작고 아담한 간판이 걸려있다. 입구를 들어서 잠시 더 가니 안내소의 건물이나 타났다 나즈막한 단층 건물이나 주위 얼마에는 나무가 적어 계곡 전체를 올려다 볼 수 있었다. 이곳만 해도 해발 2,500피트나 된다. 안내소에 들어가 구경할 곳을 물었더니 안내용 인쇄물과 함께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

티드빈빌라란 토인들이 부른 산 이름인데 높이가 5,000피트 정도의 산이고 이산과 이어 마치 병풍을 둘러친 것같이 산맥이 달리고 있는데 그 산맥의 꼭대기에서 그 계곡 일대를 자연보존 지구로 정하고 있다. 이 자연보존지구는 고유한 동식물의 군집을 보호하고, 자연상태에서의 동식물상을 일반이 볼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1936년에 이 계곡의 2천 에이커를 국립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그 개발이 중단되었다가 1964년에 주변의 8천 에이커를 추가하여 현재는 1만2천5백 에이커로 확장하여 티드빈빌라 자연보존 지구로 된 것이다. 이 보존 지구 속이나 그 주변의 산악의 숲에는 여러가지 주머니쥐(Brush-tailed, Ring-tailed Possum)들이 살고 있다. 일시 Koala의 집이었던 낮은 傾斜地에는 swamp wallaby가 보편적인데 Koala의 얼마가 다시 이 지구에 도입되었고 약간의 Emue와 두 종류의 캥가루(red and grey kangaroo)가 철망으로 울타리가 둘러진 넓은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다.

우리 일행은 먼저 전망대로 올라갔다. 전망대라고 해야 별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산보다 낮고, 큰 나무가 거의 없어 조망이 가능한 언덕 위에 차를 세워두고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숲으로 우거졌으나 내려다 보이는 얼마간의 산록에는 나무가 성글게 나있고 계곡이 트인 쪽 바로 눈아래에 캥가루와 에뮤를 기르는 울타리가 보이고 우리보다 앞서 온 차 한두대가 서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망대 바로 아래 경사면을 캥가루 몇마리가 우리를 쳐다보다가는 그들 독특한 몸짓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도 다시 내려와 동물을 기르고 있는 울타리 밖으로 왔다. 10여마리의 캥가루와 4~5마리의 에뮤가 철망 가까이까지 와서 관광객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 큰 동물원과 같았으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한다는 게시판이 붙어있는 점이 달랐다. '아직도 30분 이상이나 남았기에 다시 Koala의 放飼地로 갔다. 이곳은 유칼리나무라는 높은 나무가 짙어찬 숲이다. 그곳도 같은 시기에 열어준다기에 기다리기로 하였다. 11시 15분 넘어서야 관리인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안내로 오솔길을 걸어가며 아무리 나무 위를

처다보아도 Koala는 보이지 않았다. Koala란 꼬리가 없고 마치 곰같은 외형을 가진 짐승으로 유칼리나무(Eucalyptus)의 잎만을 먹고 산다. 키가 큰 유칼리나무는 껍질이 벗겨져 그 껍질은 말라 줄기에 매달린채 남아있던지 또는 땅 위에 떨어져 흩어져 있었다. 얼마를 찾아 헤매다가 안내인의 찾았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한마리가 새끼를 안고 나무가지 높이 앉아있었다. 아마도 개체 수가 얼마 안되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 에뮤와 캥가루의 사육장으로 돌아왔다. 많은 관광객들이 울타리 속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다, 빵조각으로 유인해본다 야단들인데 많은 에뮤나 캥가루는 대부분 멀리 도망가고 몇마리 남아 있지 않았다. 우리도 그 사람에 끼어 사진을 찍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피하던 동물들이 이제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람의 접근을 꺼려한다.

이 티드빈빌라 지역은 變成水成岩으로 되었고 더 낮은 傾斜와 東쪽 언덕은 화강암으로 되었다. 원래는 전지역이 삼림이었으나 옛날에 牧畜을 위해 벌채되어 현 植生으로 바뀌었다. 동쪽 斜面의 優占種은 약간의 Apple Box와 Mountain Gum과 함께 廣葉과 狹葉의 Peppermint이고 서쪽은 狹葉의 Peppermint, Brown Barrel과 함께 Manna Gum의 습한 삼림으로 되었고 Mountain Gum은 斜面 稜線 위까지 났고 꼭대기에는 Snow Gum이 자라고 있다.

이 지역에는 에뮤, 캥가루, Koala 이외에도 특산종이 살고 있고 까치와 Kookaburra라는 독특한 새들도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자연보존 지구는 어디까지나 Koala, 에뮤, 캥가루를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느껴졌다.

골짜기 깊숙이는 들어가 볼 수도 없었기에 우리一行은 12시를 전후하여 그곳을 떠났다.

〈高麗大 理工大 教授〉

〈15페이지에서〉

나 조림 사업에는 크게 해로운 종류이다.

4) 공원관리 및 시설문제 : 국립공원 내에서 주야로 고성방가를 하는 등 유흥장이나 야유회 장소로 오용되고 있는 실정인바, 국립공원은 마땅히 국민의 자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건전한 휴식처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시설과 환경정화 문제가 시급하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 특수 전시관 등을 시설하여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등 자연 자원의 표본을 전시하여 국민 교육자료로 삼고,

둘째 : 가로수나 도로변의 화단용 화초 등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종류로 배치하고,

예 : 가로수—단풍나무, 비자나무
화단용 화초—가재무릇, 개상사화

셋째 : 큰 나무 밑이나 그늘진 곳에는 양지 식물인 잔디보다 음지에서 잘 살 수 있는 맥문동이나 개맥문동 등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넷째 : 진입로는 도로 변을 변화있고 아름답게 꾸며 차도가 아닌 보행 전용 도로로 하여 자동차공해로 인한 자연 자원의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

환영 합니다.

사단법인 韓國自然保存協會는

우리의 祖國, 그 수려한 自然을 찾고

지키고 가꾸기 위한 國民의 會입니다.

급속한 사회의 발전중에 자칫하면 잊기쉬운 自然과 環境保存에 관심있는 國民 여러분의 入會를 환영합니다.

會員에게는 회지 “自然保存”과 각종 刊行物을 드립니다.

入會願書는 本協會 各 市道支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韓國 自然保存協會 十年史

姜 永 善

우리 나라의 자연이 황폐되어 가는 것을 우려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던 관계학자 몇몇이 마음을 모아 1963년 10월에 1개의 자그마한 회를 조직한 것이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존 학술조사위원회이며 본회의 전신이 된다. 지금으로부터 만 11년전의 일이기엔 정부나 일반사회에서 이러한 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회라 해도 발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도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 당시 개인에게는 정부에서 다소나마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우리 회를 밀어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그러는 동안에 호지부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1965년 8월에 우리는 이 위원회를 한국 자연보존위원회(The Korean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라 개칭하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단법인체를 만들것을 다짐했다. 때마침 1965년 11월 이 사람의 친지이면서 국제적으로 이름이 높은 미국의 H. J. 쿨릿치씨가 서울대학교에서 명예이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내한한 기회에, 우리 회의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한 끝에 우리나라 휴전선(DMZ) 근처의 자연에 대한 학술연구의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가 연구추진을 위한 스폰서를 미국에서 찾아 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우리는 그해 12월과 그 이듬해 5월에 서울신문사의 후원으로 DMZ부근 자연에 대해 예비답사를 실시했다. 이것이 우리 회로서는 최초의 연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계기가 되어 1966년 10월에 우리 회는 미국 스미소니안연구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DMZ부근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공동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것이며 우선 2년간 한국학자 30명과 미국학자 6명이 동원되었고, 미국측으로부터 11만\$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소장인 생물학자들은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연구계획은 우선 DMZ부근 일대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의 기초조사이며, 이것이 끝나는 1968년 가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그에 대한 본 연구를 시작할 것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는 미국에서 후원을 해서 생태학을 주축으로 하는 생물학에 관한 연구소를 우리 나라에 세울 것도 합의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8년 1월 김 신조 일당의 북한 무장제럴라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들어오자 미국측은 한국의 군사정세가 안정되기까지 새로운 계획은 보류한다고 해서, 1968년 8월말경 DMZ에 대한 연구계획은 그 당시 추진해 오던 기초조사로서 끝이 나고 말았다. 그 뒤에 다시 1년간은 허무하게 지나갔다.

1969년 5월 본회는 문화공보부 산하 사단법인체로서 승인을 받게 되었고, 회의 명칭도 한국 자연보존연구회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그 후는 금일에 이르기까지 문화공보부로부터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후원을 받아가면서 자연보호구역 및 명승지 후보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를 계속해 왔다. 1970년에는 전남, 소흑산도와 경남,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에 대한 학술조사 이외에 우리나라의 자연을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책자 “한국의 자연”을 발간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자연 및 자연자원에 관한 최초의 단행본이며, 또 우리 회로서도 성의껏 애써서 만든 것이기에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판을 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우리 회가 1970년이래 학술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은 것은 소흑산도 및 낙동강 하류지역 이외에도 경북 울릉도, 강원도 오대산 및 소금강, 전북의 무주구천동, 전남 해남 등 여러군데이다. 또 작년 가을에는 전국 명승지 30여지역에 대한 종합 제1차 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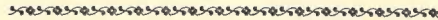
본회가 1963년에 창립되어 만 10년 이상을 걸어 오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일도 많았지만 국내적으로는 사단법인체로써 어느 정도 육성이 되었고, 또 국제적으로는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의 산하단체로서 국제적인 체면을 유지하려고 힘써 왔으며, 기금이 전무한 회로서는 비교적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이 사람은 1965년 11월 이제는 고인이 된 조복성 박사의 뒤를 이어 지난 5월까지 8년 6개월동안 본회를 이끌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학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자리를 물려섰다.

본회는 지난 5월부터 총재로 육영수 여사를 모

시고, 새로 선출된 회장인 이덕봉 박사가 중심이 되어 기왕의 학술적인 면만에 치중했던 조촐한 연구회로서의 활동을 지양하고, 각 시도에 지부를 둘뿐 아니라 회원도 대폭 늘려 앞으로는 범국민적인 자연보존사업을 크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구미사람들은 흔히 자연을 보호하는 면에서 "use and mangement"라는 말을 잘 한다. 자연을 이용만 하지 말고 늘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 회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강산의 자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면, 앞으로 얼마 안가서 금수강산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대 文理大 教授>



내장산 국립공원 종합 학술조사 중간보고

<편집부 제공>

본 내장산 백양산 일대 국립공원 지역은 74.8km²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산세가 험준한 곳이므로, 7일간이라는 단시일에 소수의 인원으로 종합학술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바쁜 일정이였다. 따라서 각 조사 위원들이 수집 조사한 자료를 아직 검토 정리하지 못한 실정이나 우선 그 개략적인 것만을 각 조사 분야별로 간추렸다.

각 분야별 중간보고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식물 경관반(박 봉규 : 이대교수)

현재 낙엽 활엽 수림인 내장산 지역은 약 40년 전만 해도 소나무림이 울창했다고 한다. 그 후 일제의 남벌과 6·25시의 전화로 이들 상록 침엽수

림이 파괴되고 활엽 수림으로 천이 된 것으로 보인다. (활엽 수림이 극상을 이루려면 150여년이 걸린다)

대표적인 활엽수림 우점종은 참단풍, 층층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의 순이다. 특히 이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굴거리나무 군락은 중요한 자연자원의 하나라 하겠다.

백양사 쪽은 능선 부근에 최근 산화가 있었고 벌목도 있어 쓰러져

통이 많고 여기에 조릿대가 덮고 있다.

토양조건은 토양 부식도가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낙엽 활엽수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엽태가 좋지 않다.

2. 단자엽 식물반(이 영노 : 이대교수)

이 지역의 단자엽 식물상은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이는 활엽수와 비자람 등으로 인한 광선량의 부족 때문인 것 같다. 그중저로 이 지역에서의 단자엽 식물의 분포는 주로 능선 부근에 약간씩 나고 있는 정도이다.

특기할 식물로는 지이대사초, 백양사초, 노란꽃의 가재무릇(*Lycoris koreana*), 개상사화(*Lycoris aurea*), 상사화 등이 드물게나마 넓은 지역에 걸쳐 자생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희귀식물 백운란이 채집된 것은 학계에 큰 관심사이다. 또 *Geum* 속의 식물 1종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차후 조사를 요한다. 기타 참억새, 새풀, 기름새 등은 목초자원 식물로서 활용성이 높은 종류이다.

3. 목본 식물반(이 창복 : 서울대 농대교수)

이 지역의 수목은 굴거리 나무 군락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내장산의 굴거리 나무 군락은 이미 알려져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백양사 지역은 이번에 새로이 그 군락이 발견되었고 이 사이에 홍도 등 남부 도서지방에서만 알려진 의나무가 내륙인 이 지역에 자생하고 있음도 새로운 사실로 주목된다.

기타 대부분의 지역은 제탄후에 생긴 2차적 관목림이 형성되어 내장단풍, 참단풍, 굴참나무, 싸리나무 등이 있는데 단풍나무로는 참단풍이 많고, 굴참나무, 싸리나무 등이 많은 것은 산화로 인한 피해 이후 산불에 강한 이들이 비교적 견디어 남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나무와 굴거리나무 중 몇그루는 이미 알려진 다른 지역의 것 보다도 오히려 크고, 직경(가슴높이)이 20cm 가량이나 되는 노박덩굴 같은 것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이 지역의 밤나무는 100% 해충(혹벌)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들 피해 개체와 혼생하면서도 전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밤나무(수령 : 30-40년, 재래종 밤나무)가 2그루 발견되어 이를 조사중에 있다. 조사결과 만일 내충성 밤나무로 확인된다면 앞으로 내충성 밤나무 수종개발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4. 곤충반(신 유향 : 경희대 부교수)

식물의 경우 남방계 식물의 북한지대인 것처럼 곤충의 경우도 장수풍뎅이, 남방부전나비 등 남방분자와 내륙분자가 혼생하고 있다. 5대 삼림 해충

이라고 하는 흰불나방과, 짐시나방, 솔잎 혹파리 등은 거의 없으나 밤나무 혹벌은 많다.

5. 곤충반(김 창환 : 고려대 교수)

채집된 자료가 정리중에 있으므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나, 한국 미기록종이 몇종 나올 것으로 본다.

내장사 입구 양측(406고지, 643고지)에 굴참나무를 해치는 자벌레가 대발생을 하여 곳곳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번져간다면 굴참나무가 많은(전체 수목의 약 20-25%)이 지역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자연계의 평형을 위하여는 무작정 농약을 산포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절한 약제를 국한 지역에만 산포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동물의 시체를 먹고 사는 송장벌레라는 곤충도 여러해 전만해도 어느 지역이나 흔히 있는 종류 였으나 근래에는 보기 힘든 종류가 되었다.

6. 양치 식물 및 쌍자엽 초본 식물반(박 만규 : 고려대 교수)

남방계 식물의 북한지대이며 습기가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치 식물상은 매우 빈약하다.

남방계인 좀돌담고사리는 내장사에는 없고 백양사 지역에서만 확인되었으며 석회암 지대의 표식종인 잔털고사리가 석회암이 아닌 반암(斑岩)에 나고 있음은 특기할 사실이다.

또 백양사 지역의 특산물인 작설차의 원료가 되는 차나무가 수년전만해도 흔히 볼 수 있는 종류 였으나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다. 이는 양치식물과 마찬가지로 조릿대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된다.

7. 기타 조류반(원 병오 : 경희대 교수)의 경우도 천연기념물인 까막딱다구리와 검독수리 등의 서식 장소가 확인되었고, 어류반(최 기철 : 서울대 사대 교수), 균류반(홍 순우 : 서울대 문리대 교수), 자연 지리반(김 도정 : 서울대 문리대 교수)등도 아직 자료를 정리중이나 많은 수확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건의 사항

- 1) 등산로의 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 2) 야영 장소의 정비 : 장소를 국한하고 화장실, 상수도 등 기본시설 완비.
- 3) 조릿대문제 : 사방 사업용으로는 좋은 종류이
<12페이지에 계속>

社團 韓國 自然保存協會 沿革

- 1963. 10. : 國際自然保存聯盟 總裁 H. J. Coolidge 博士의 命에 의하여 W. J. Hart 씨가 내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돌아보고 自然保護의 시급함을 우리 政府에 建議함.
- 1963. 12. 24 : 韓國自然 및 自然資源保存 學術調查委員會의 創立總會를 갖고, 회장 趙福成, 부회장 李德鳳, 姜永善 제씨를 선출함.
- 1964. 11. 1~12. 30 : 文教部 文化財管理局의 補助로 國立公園候補地인 漢拏山, 紅島, 雪岳山 일대 學術調查를 실시함.
- 1965. 8. 11 : 본회의 명칭을 韓國 自然保存委員會라 개칭함.
- 1965. 8. 17 : 총회에서 본회를 社團法人體로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定款을 통과시키고 理事長에 姜永善 理事를 선출함.
- 1965. 11. 3 : H. J. Coolidge 박사 내한, 自然資源保存의 必要性 및 世界的인 動向이란 主題로 講演會를 갖임.
- 1965. 12. 20~22 : DMZ 學術調查를 위한 豫備踏查(西部地域)를 실시함.
- 1966. 5. 5 : 미국 Smithsonian 연구소 초청으로 본회 理事長 渡美, 生態學의 研究를 위한 基礎調查를 韓美共同으로 실시키로 합의함.
- 1966. 7. 2 :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9차 IUCN總會에 姜永善 理事長 및 元炳旣 理事가 참석하여 본회를 團體會員으로 가입시킴.
- 1966. 5. 17~22 : 서울新聞社 후원으로 DMZ(판죽골)에서 豫備學術調查를 실시함.
- 1966. 6. 27~30 : DMZ 學術調查를 위한 豫備踏查(中東部地域)를 실시함.
- 1966. 9. 7 : Smithsonian 연구소와 공동으로 DMZ 生態學의 研究를 위한 基礎調查에 착수, 美國측 常駐研究員 E. L. Tyson 박사가 내한함.
- 1966. 9. 10~16 : DMZ 生態學의 研究를 위한 美國측 學者 6명 내한, 韓國측 학자들과 같이 現地調查를 실시함.
- 1966. 10. 15~1968. 6. 30 : 韓美共同 DMZ 生態學의 長期研究計劃을 위한 基礎調查를 계속함(經費는 美國측 전달 101,000달러를 사용함).
- 1967. 1. : 우리 나라의 國立公園法(案)에 대한 內容修正을 政府와 國會에 建議함.
- 1967. 11. 10 : 韓美共同 DMZ 生態學의 研究 基礎調查의 美國측 代表 H. K. Buechner 박사 내한 5 個年計劃을 협의함.
- 1967. 12. : 본회의 명칭을 韓國 自然保存研究會라 개칭함.
- 1969. 5. : 文化公報部에서 社團法人體로 승인 받음.
- 1969. 11. : 인도 뉴우첼리에서 열린 제10차 IUCN 총회에 본회 李敏載 理事가 참석함.
- 1970. 5. 28~6. 3 : 洛東江下流 철새 渡來地 綜合學

- 術調查 제1차 조사를 실시함.
- 1970. 5. 30 : “한국의 자연”(Nature in Korea) 책자를 발간함.
- 1970. 7. 28~8. 11 : 全南 小黑山島 綜合學術豫備調查를 실시함.
- 1970. 9. 17~26 : 洛東江下流 철새 渡來地 綜合學術調查 제2차 조사를 실시함.
- 1971. 5. : 우리 나라의 自然資源保存이 시급함을 各界機關 및 報道機關에 建議함.
- 1971. 7. 3 : 東亞日報社 및 東亞放送局과 共同主催로 內水面 保護와 開發에 관한 세미나를 신문 회관에서 개최함.
- 1971. 8. 5~11 : 慶北 鬱陵島 綜合學術調查를 실시함.
- 1971. 9. 16~25 : 江原道 五臺山 및 小金剛 綜合豫備調查를 실시함.
- 1972. 5. 26 : 東亞日報社와 共同主催로 自然保存을 위한 講演會를 체육회관에서 개최함.
- 1972. 6. 8~14 : 茂朱 九千洞 일대 名勝地候補地域 學術調查를 실시함.
- 1972. 8. 14~20 : 海南 大屯山 일대 名勝地候補地域 學術調查를 실시함.
- 1972. 9. 15~10. 5 : DMZ 인접 地域 綜合學術調查를 실시함.
- 1973. 11. 1~12. 20 : 全國名勝地 綜合 第1次 調查를 실시함.
- 1974. 2. 5 : 第6次 總會에서 본회 명칭을 韓國 自然保存協會로 개칭, 定款을 改定하고 會長 李德鳳, 副會長 李徽載, 金昌煥 諸理事를 選出함.
- 1974. 4. 2 : 李孝祥, 李殷相 양씨를 고문으로 추대함.
- 1974. 5. 15 : 大統領 令夫人 陸英修 여사를 總裁로 추대함.
- 1974. 5. 28 : 江原道 昭陽湖에서 淡水魚 10만여마리를 放養하고 記念碑를 建立除幕함.
- 1974. 5. 29 : 慶北支部 結成(支部長 楊麟錫 博士)
- 1974. 7. 4 : 事務室 移轉(洪陵 林業試驗場內)
- 1974. 7. 18 : 忠南支部 結成(支部長 南貞燮 理事)
- 1974. 7. : 서울 京畿支部 結成(支部長 姜永善 博士)
- 1974. 8. 1~7 : 國立公園 內藏山一帶 綜合學術調查(團長 : 朴萬奎 博士)
- 1974. 8. 15 : 總裁 陸英修 女史 逝去
- 1974. 8. 23 : 江原支部 結成(支部長 孫繼天 理事)

題字는 成均館大學校 教授 閔泰植 博士의 揮毫입니다.

발행인 李 德 鳳
 편집인 金 昌 煥
 연락처 서울特別市東大門區清涼2洞山1
 林業試驗場內 T. ㉞ 8961-5

社團 韓國 自然保存協會
法人

<비매품>